위법망구 정신으로 불교정화 이끈 월탄 스님

8월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종단 원로회의장으로 영결식
"정화불씨 살렸던 주역" 추모
한평생 정화정신 유지실천해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한국불교 혼란기에 위법망구 정신으로 불교정화를 이끌었던 미룡당 월탄 스님의 영결식이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를 비롯해 사부대중들이 운집해 스님의 생전 가르침과 행장을 되짚으며 마지막을 함께했다.

영결식은 문도대표의 헌다 · 헌향에 이어 행장 소개와 생전 법문, 원로의장 학산대원 대종사의 영결사,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법어,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추도사 등으로 진행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과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덕문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의 조사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문근 단양군수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법어에서 "월탄 스님은 위법망구를 행동으로 보여 정화불씨를 살려낸 정화 육비구 가운데 한분"이라며 "거룩한 구법행이 여론을 바꾸고 정화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오늘의 여법한 조계종단을 만드셨다"고 추도했다.

생전 불교정화를 주도했던 만큼 이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월탄 스님은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의 당사자다. 광복 후 비구대처간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대법원의 판결로 불교정화 운동의 정당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하자 이에 반발해 순교에 나서, 정화불씨를 되살리고 사회적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원로의장 대원 스님은 "어려운 때 스님께서 남기신 정화정신과 무한한 공덕에 위안을 얻는다"며 "스님의 높으신 정화정신과 도덕의 공덕은 미래겁이 닿도록 말을 해도 다하지 못하고 불교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8월 8일 단양 미륵대흥사에서 영결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도 추도사에서 "정화의 물줄기로 한국 불교의 계율 정신을 되살리신 대종사를 적멸의 세계로 보내드린다"며 "생사와 별리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미욱한 대중들은 허허롭지만 그 가르침을 기억하며 추모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외부의 조사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에서 "부처님의 정법과 한국불교 전통을 복원하기 위해 용맹정진하신 분"이라며 "부처님 정신을 널리 펼치는데 정진해 오신 뜻을 기리고 대자대비의 정법이 이 땅에 영원히 머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월탄 스님은 불교정화 이후 출범한 종단에서 총무원 집행부 소임을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중앙종회의원을 수차례 역임하고 종회의장을 역임하는 등 입법을 통한 체제정비에도 원력을 쏟았다. 종단을 위한 역할에 매진하면서도 화두를 놓지 않고 정화정신을 꼿꼿하게 이어갔다는 점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는다.

종단 원로 정휴 스님(화암사 회주)은 "승가 대선배이신 월탄 스님은 과거 한국불교 혼란기에 당대 큰스님들이 이끌던 불교정화운동에 헌신해 정화의 기치를 세웠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대목이 이후의 행보"라며 "월탄 스님은 평생에 걸쳐 계율에 어긋남 없이 정화정신을 꼿꼿하게 지켜내셨다는 점에서, 당신의 삶으로서 불교정화의 시작과 끝을 오롯하게 드러내셨다"고 회고했다. 생전 월탄 대종사와 인연이 각별했던 이란 여여회 회장 보살도 "저의 공부와 수행에 기름을 부어주신 스승"이라고 회상했다. 이란 보살은 "30년전 가정법회를 진행하며 모신 첫 법사스님이 월탄 대종사로, 교와 선에 치우침이 없으신 선지식이었다"면서 "지역 신도들과 주민들에게도 '산할아버지' 같은 친근한 도인이셨다"고 말했다.

한편 월탄 스님의 2재는 8월 17일, 3재는 8월 24일, 4재는 8월 31일 청주 용화사에서, 5재는 9월 7일 서울 삼천사, 6재는 9월 14일 청주 용화사, 7재는 9월 21일 단양 대흥사에서 봉행된다.

나눔의집 · 사찰 등 집중호우 피해 확인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집과 안산 쌍계사 등 사찰피해가 이어졌다.

나눔의집에 따르면 8월 8일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빗물이 거세게 들이쳐 제1역사관 지하 전시실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설 내 있는 피해 할머니 증언으로 만든 위안소 모형은 완전히 침수되고, 할머니들 증언 영상 시스템과 일본군 군복 등이 빗물에 젖어 훼손되는 등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생활관 뒤편 축대도 무너져 내려 안전도 위협받는 상태다.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면서 "할머니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밖에 안산 쌍계사는 배수로가 넘쳐 빗물이 사찰로 유입돼 경내가 침수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성남 봉국사는 전각에 침수가 발생했으며, 강서 미타사는 경내 나무가 넘어졌다. 고양 봉성암은 진입로 토사가 유실돼 8월 9일까지 잠시 고립되기도 했다. '여주 고달사지'도 우측 배수로 면석이 탈락되고 울타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임은호 · 노덕현 기자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 진우 스님 지지 선언

8월 9일 공동기자회견 열어
"수행 · 포교 등 검증된 후보"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스님들이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진우 스님에 대한 지지를 공식표명해 주목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5개 종책모임은 8월 9일 진우 스님의 후보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강회(회장 호산), 법화회(회장 성행), 무량회(회장 진화), 금강회(회장 보인), 비구니회(회장 상덕)가 함께했으며, 60여명의 중앙종회 의원스님들이 참석했다.<사진>

중앙종회에서 활동하는 종책모임 전부가 한 후보에 대한 공동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33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이후 처음이다. 특히 현재 중앙종회의원 중 5개 종책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 의원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지지선언은 사실상 중앙종회 지지표명에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중앙종회 화엄회 · 무량회 · 법화회 · 금강회 · 비구니 종회의원 일동은 이날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에 교육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을 지지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원 스님들은 입장문에서 "앞으로 4년간 종단을 운영할 최고수장인 제37대 총무원장은 수행과 교화를 본분사로 종단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 산적한 종단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갈등과 분열로 갈라진 국민 화합과 불교중흥, 국가 발전에도 기여해야 할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조계종단은 9월 28일 취임할 제37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절차를 종헌과 종법에 따라 여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 스님들은 "그럼에도 과거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난립과 분열, 근거없는 음해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불자와 국민에게 큰 불신과 상처를 주기도 했다"며 "이를 우려해 지난 4일 전국 2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선거로 인한 분열과 비방 등 선거폐단을 우려하며 수행과 포교가 검증된 단일후보가 추대되기를 간곡하게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들은 "이에 우리 종책모임은 종단 원로, 중진, 교구본사 주지스님,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진우 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스님들은 "진우 스님은 수행과 포교가 검증되며 종단 발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이력을 가진 공심 있는 후보"라며 "이에 종책모임 중앙종회의원들은 수행과 교화를 본분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해 정진해 온 진우 스님이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여법하게 선출돼 종단과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범어사 주지에 보운 스님…"화합 최우선"

원행 스님, 8월 10일 임명

조계종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신임주지에 보운 스님이 임명됐다. 앞서 방장 지유 스님은 임회에서 최근 사퇴한 前주지 경선 스님의 후임에 보운 스님<사진>을 지명한 바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1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보운 스님에게 범어사 주지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범어사는 부산 뿐 아니라 경상도 전역에 신도층이 넓게 분포된 사찰"이라며 "무엇보다 동산 스님의 드높은 가르침을 계승하는 본사인 만큼 대중 스님들과 잘 화합해서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운 스님은 "화합을 최우선으로 삼아 방장 스님을 비롯해 어른 스님들을 잘 모시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종헌종법에 부여된 기준과 원칙을 잘 준수해 화합을 이루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조계종, 선암사 판결 규탄 성명 잇따라

중앙종회 · 전국승가대 · 대학원
"한국불교의 역사 · 전통 부정"

조계종 중앙종회와 전국승가대학 · 승가대학원 교직자들이 최근 법원의 선암사 판결에 대해 "한국불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는 8월 3일 '한국불교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60년전 선암사에 거주했던 일부 대처승들이 조계종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이며, 일제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승가대학 · 승가대학원 교직자들도 8월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황당한 논리로 조계종의 실체를 부정한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순천 선암사의 역사적 진실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사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송지희 기자

제18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거 공고

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제50조, 선거법 제22조, 전국비구니회 회칙 제38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8대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거일시 · 장소

2022년 9월 15일(목) 오후 1시,
전국비구니회관 1층 메따공연장

비구니중앙종회의원 선출 분야

교학 · 수행분야(2명), 포교분야(2명), 복지분야(2명),
행정분야(2명), 사회 · 문화분야(2명)

입후보자 등록 기간

불기 2566년(2022)년 8월 22(월) ~ 8월 24일(수) 오후 5시
(우편접수는 8월 24일자 소인까지 유효함)

입후보자 등록서류

4-1. 종단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 1부
- 이력서(소정양식) ····· 1부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각 1부
- 종법준수 각서 비구니용(소정양식) ····· 1부
- 투 · 개표참관인 신고서(소정양식) ····· 1부
- 반명함판 사진 ····· 3매

4-2. 전국비구니회 등록서류
- 개인정보공개자료(소정양식) ····· 1부
- 비구니종회의원 서약서(소정양식) ····· 1부
- 지회활동확인서(소정양식) ····· 1부

참고사항

1. 회칙 제40조(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종헌종법에 준하여 종회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2. 회칙 제41조(행위제한)에 의하여, 개별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중 개인정보공개자료로 선출위원회에서 일괄 홍보한다.
3. 전국비구니회 선거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전국비구니회 소임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등록시작일 전까지 그 직을 정지하여야 한다.

접수 및 문의처

서울 강남구 광평로31길 56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회
전화 : 02-3411-8103, 010-8248-8103
※등록서류 일체는 전국비구니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입후보자 자격 및 선거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기2566(2022)년 8월 15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중앙종회의원 후보 선출위원장